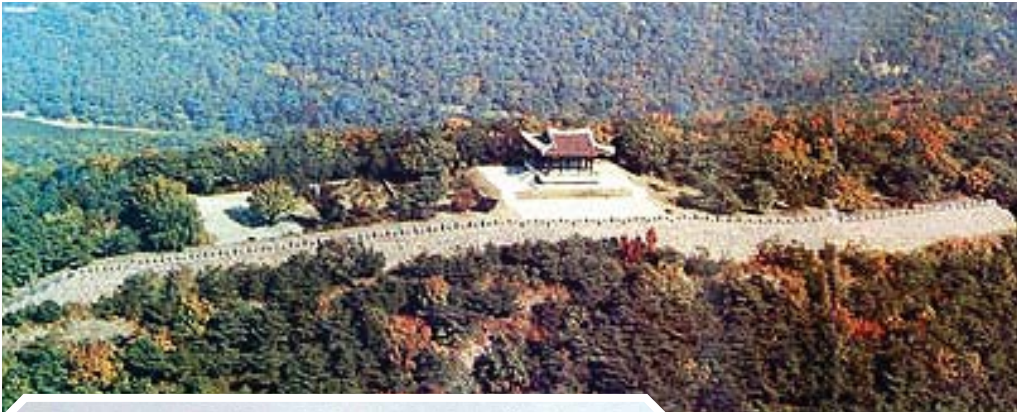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고구려시기의 귀중한 력사유적 - 대성산성



안학궁터

대성산성의 전경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는 우리 민족사에 깊은 자욱 우리의 취재길은 5세기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더불어

우리와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대성산일대에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위하여 건설하였던 안학궁과 대성산성, 그 주변의 도시유적과 방위성유적,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호남리사신무덤을 비롯한 천여기에 달하는 고구려무덤들이 있어 하나

의 큰 고구려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큰성이라는 뜻의 대성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주변의 력사유적들이운데서 대성산성을 첫번째로 꼽는다고 한다. 그의 해설을 들으며 소문봉을 따라 한참 올라가느라니 남쪽경사면에 치우쳐 있는 옛 산성이 눈앞에 안겨왔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왕궁이었던 안학궁을 보위하는 방위성으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림금석 실장은 대성산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대성산성은 소문봉, 울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의 봉우리

들을 연결하여 산릉선을 따라 쌓은 총길이 9284m에 이르는 큰성이라고 한다. 대성산성안에는 전시에 왕과 수천, 수만명의 군사들과 인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외적을 쳐물리칠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고 한다. 대성산성에서는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고 하면서 림금석실장은 산성이 고구려의 발전된 산성건축술과 성방위체계를 연구하고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안겨주는데서 귀중한 력사유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풍운의 력사가 력력히 어려있는 대성산성을 바라보느라니 천년강국으로 자랑났던 고구려시기 인민들의 용맹과 기개가 장엄하게 안겨왔다.

장승영

천연기념물 백두산조선범



조선범은 씨비리범(씨비리 남동지역), 화남범(중국경내), 이란범(인디아, 네팔, 이란), 발리범(말리만반섬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을 비롯한 여러 아종들보다 크고 날쌔며 용맹스럽고 잘생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동물이다. 조선범의 몸길이는 150~180cm, 꼬리길이는 90~100cm이며 몸질량은 150~200kg이다. 고양이고 짐승들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서 대개는 크고 얼굴이 넓으며 귀는 짧고 둥글다. 다리는 든든하게 생겼으며 네발에 날카로운 갈구리발톱이 있다. 양볼에는 긴 수염이 옆으로 위엄차게 나있고 이마의 중심에는 포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으며 털은 백색과 동쪽에는 선명한 누린색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조선범은 높은 산지대의 울창한 수림속에서 사는데 낮에는 자연바위굴이나 밀기나 무술속에서 휴식하고 초저녁과 이른새벽에 활동한다. 먹이는 주로 메돼지, 노루, 사슴, 사향노루, 늑대, 송냥이 등이며 번식은 2~3월에 한번씩 하는데 3~4월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천연기념물 제357호로 등록된 백두산조선범은 공화국의 북부 높은 산지대의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 산다. 조선범은 국제적인 특별보호대상동물이다.

본사기자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약초재배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러가지 약초를 리용하여 만든 고려약을 병치료에 많이 써왔다. 단군설화에 마늘과 쑥의 신비한 약효가 소개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형성이전시기에 벌써 약초에 대한 리해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약초에 대한 리해는 세나라시기에 더 깊어졌는데 《해동역사》를 비롯한 옛 문헌들의 기록에 나오는 인삼에 대한 노래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고구려사람이 지은 이 노래에는 인삼의 형태와 생리적특징, 인삼이 자라는

지대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고려때에는 앞선 시기에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약초재배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많은 의학자들에 의해 여러가지 약초들이 얻어낸 약재들이 병치료에 널리 리용되었다. 그 과정에 인삼, 지황, 구기자 등 여러가지 약초가 재배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삼은 약리효능이 높은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지난 시기 우리 선조들이 고려약을 리용하여 병치료에서 거둔 의학성과들을 집대성한 도서

《향약집성방》이 나와 널리 보급되었다. 19세기에 편찬된 《림십록지》 판규지의 기록을 보아도 토종약초를 기본으로 약초재배가 다종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생산된 약초는 가루내기와 찌기, 말리기, 삶이거나 술에 담그기, 꿀에 재우기와 같은 갖가지 가공방법을 거쳐 병치료에 리용되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약초재배를 널리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고려의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슬기롭고 재능있는 민족이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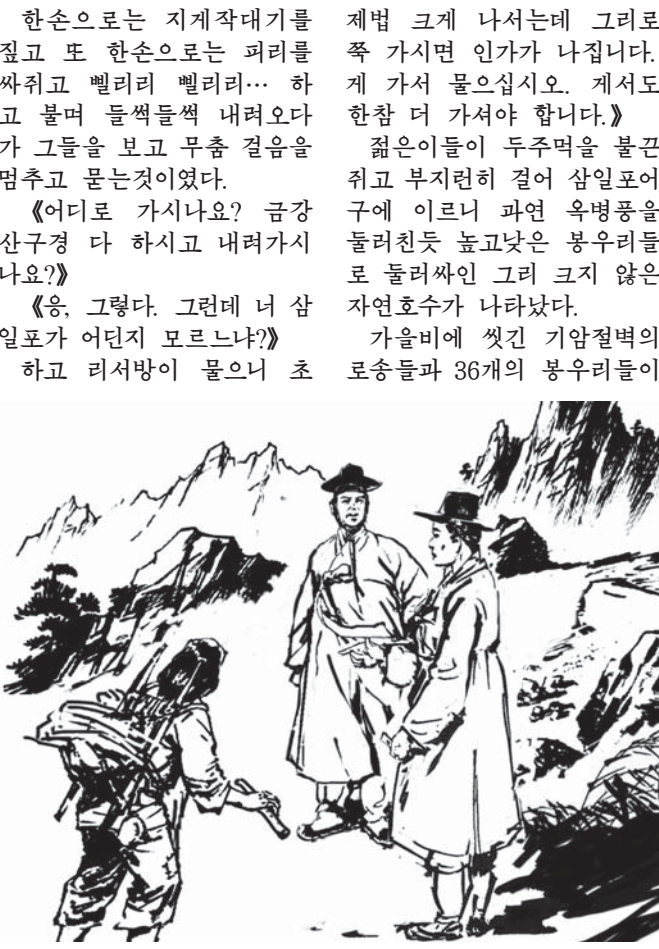
공화국의 고려약공장들에서 생산되고있는 고려약들

사화 몽천 (1) 글 권영희, 그림 김윤일

옛날 충청도 청주땅에 사는 두 젊은이가 보는 속리산에 들어가 글을 읽고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중에 리가성 가진 젊은이가 문득 글읽던 책상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어보게 연서방, 우리 금강산경 가세. 지금이 꼭 좋은 계절일세. 단풍이 한창 일레니 그 아니 좋은가.》 《그럼 가세. 그런데 차비를 단단히 하구 떠나야 할게 아닌가.》 《원 참, 자네도. 차비는 무슨 차비가. 대지팽이 하나에 미투리 한켠이면 되지. 그 야말로 죽장방헤로 가면 되겠어.》 이리하여 그들은 말그대로 죽장방헤로 속리산을 떠나 수일만에 금강산에 이르러 지팡이를 길안대로 두루 돌아보는데 금강산은 산악미의 정화일뿐 아니라 온갖 식물의 보물고이기도 하였다. 가을이어서 온 산은 타는 듯 붉은데 단풍의 가지수 또한 무르익어 향기로운데 열매 배를이 눈으로 더 좋은 것을 어찌 가려보겠나. 나는 황홀해서 그만 취해버렸네. 《허허허...》

리서방이 한번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우물안 개구리는 먼한것 같은가? 나도 오늘 참 많은것을 생각했네. 들어앉아 글을 읽다보니 내가 사는 나라가 이토록 아름다움을 알고 살고 살았네.》 한동안 생각이 잠겨 말없이 걸던 연서방이 또다시 입을 열었다. 《어보게! 리서방, 그 왜 삼일포라는데가 있지 않은가? 전설에 옛날 어떤 왕이 하루동안 놀려고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사흘을 놀다갔다고 해서 삼일포라 한다는 곳 말이야. 거기 가보세. 우리가 언제 다시 오겠나?》 《하하, 아니, 자네는 아까 이젠 승경에 눈이 배물러 더는 못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답하곤 리서방이 고개를 젓혀 하늘을 퍼득 쳐다보며 《아직 해는 있네만 길을 잘 모르니...》 하는데 문득 풀퍼리소리가 들려 고개를 둘러 바라보니 한 초동이 나무단우에 머무르다 내려오고있었다.

한손으로는 지게작대기를 짚고 또 한손으로는 퍼리를 싸고 리리 벨리리... 하고 불며 뚝뚝씩 내려오다가 그들을 보고 무릎 꿇음을 멈추고 묻는것이였다. 《어디로 가시나요? 금강산경 다 하시고 내려가시나요?》 《음, 그렇다. 그런데 너 삼일포가 어딘지 모르느냐?》 하고 리서방이 물으니 초



그 그림자를 물우에 던지고 있었다. 쪽빛같은 물에 담은 호수가운데는 모래우에 소나무들이 우거진 두세개의 크고작은 섬들과 물우에 머리를 내민 큰 바위가 보였다. 《아, 참 아름답군. 마치 한폭의 그림을 보는것같은데.》 하고 리서방이 황홀해서 호수를 둘러보고있는데 어린듯 취한듯 호수가에 자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태권도 선수 김유심

어려서부터 태권도에 남다른 취미와 소질을 가지고있던 김유심은 황해북도래린도 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제12차 청소년 및 제7차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46kg급 여자개인맞서경기에서 우승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성인급에 올라선지 몇년밖에 되지 않는 지난 기간 자신의 육체적기술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2차례의 국내경기들에서 그는 경기의 식이 높고 완강한 투지를 소유한 강자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높은 실력은 맞서 경기에서 훌륭히 발휘되었다. 예선경기에서부터 맞닥뜨린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결승 단계에 진출한 그는 이악하고 적극적인 공격과 반공격으로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전술적도를 잘 살리었다. 빠른 이동에 의한 민첩한 동작으로 불의적인 타격을 들어대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그는 자기몸무게급에서 우승자의 영예를 지녔다. 국내의 강자들이 참가하여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경기대회에서도 그는 완강한 투지와

함께 높은 기술수준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여자경량급경기에서 그와 맞닥뜨린 선수들은 높은 실력과 로련한 경험, 전적을 가진 김유심은 경기시작부터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리면서 우세한 전술, 기술로 맞닥뜨린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우승자가 되었다.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그는 팀이 1등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기성과들로 하여 그는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조선화 《구룡폭》



조선화 《구룡폭》은 천하 절승 금강산의 외금강에 있는 구룡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세련된 필치로 형상화하였다. 우리 민족의 이름난 화가였던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경화작품이다. 눈이 솟은 바위산으로 왼쪽화면을 가득 채우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낮은 산을 배치하여 공간감을 조성한 화면구성, 눈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정경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힘찬 선묘기법, 짙은 색의 먹으로 점점이 찍고 굵은 선과 가는 선을 쪽쪽 내리고어 아찔하게 솟아있는 바위산의 생김새를 실감있게 묘사한 대담하고 기백있는 필치 등은 금강산(대륙포의 하나인 구룡폭포의 절승경관을 잘 부각시켜 주고있다.

《구룡폭》은 조선화의 우수한 특성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이 시기 금강산을 묘사한 그림들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옛날 평안도 어느 한 두메산골의 자그마한 마을에 장대용이라는 젊은이가 살고있었다. 그는 천성이 어지고 대바른데다가 용맹과 지략을 겸비하고있어 의협심이 강했다. 특히 그는 남을 도와주는것을 락으로 삼았다.

한 처지에 빠진 규수를 구원하고 그에 락을 걸고 맞아들인다면 진정한 부부로는 못되는 법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한평생 죄인으로 되어 사람다운 락을 지니고 살지 못할것이라고 거절하였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것이 진정한 미덕이다

어느해 봄날 장대용은 금골부근의 마을에 나타나 로략질과 살인방화를 일삼는 도적무리를 징벌하고 인물골기로 소문난 최로인의 말을 구해주었다. 최로인은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장대용에게 시집보려고 하였다. 사실 딸에게는 이미 영감이라는 정든 사람이 있었는데 처녀를 구하려고 도적과 맞서 싸우다가 다리를 상하여 운신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었다.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해하던 처녀는 다음날 최로인을 따라 장대용의 집으로 갔다. 최로인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장대용은 《로인님, 다른 일로 인연이 맺어진다면 별다른것이 없지만 불행

본사기자

도적과 게으름뱅이

옛날에 한 도적이 몰래 남의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은 침대에 누워 까딱하지 않았다. 깊이 잠들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런데 집이 하도 가난하여 아무리 둘러봐야 가져갈만한 물건이 없어 문을 열어놓은채로 나가버렸다. 이때 침대에 죽은듯이 누워있던 주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 봤으면 문이나 좀 닫고 가요.》 도적이 돌아서서 오히려 꾸짖었다. 《당신이 그렇게도 못사는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려!》 그러자 집주인은 코웃음치며 말했다. 《벌어놓았잖아 당신같은 사람들이 도적질해가겠는데 그럴바엔 차라리 그냥 누워있는게 낫지.》